

# 고고한 자태 뽐내며 논밭 위로 유유히

길고 가느다란 다리에 까맣고 긴 부리. 천연기념물 황새다. 마치 연하장 그림처럼, 흰 눈이 쌓인 갯벌과 논밭 위로 크고 흰 새가 목을 길게 빼고 유유히 날아다닌다.

고창군 해안가와 갯벌 곳곳에서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황새가 목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전 겨울마다 10여 마리가 고창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60여 마리가 무리로 목격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사진작가 박현규씨 제공)



예로부터 황새는 한반도에 고루 분포하며 우리 민족의 사계절과 더불어 살아온 텃새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렵과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3,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국제자연보존연맹에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100호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사례’

고창군은 이번 황새 무리 출현에 대해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생태계 멸종위기종의 최적의 서식환경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새들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활동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송어와 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염도가 낮은 민물을 만나면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황새들이 이런 양호한 서식환경을 본능적으로 알아내 기수역에 모인 것이다.



### 고창 하천·갯벌 곳곳에서 황새 무리 발견 잇따라

“겨울에도 따뜻해  
먹이 풍부한 바닷가 등을  
월동지로 선택한 듯”

연산란과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문화재청은 먹이가 풍부하고, 개발이 적은 고창에서 황새가 월동기를 지나 산란기까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충분히 황새의 고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람은 황새를 키우고, 황새는 사람의 삶을 중요하게

황새가 살기 좋은 환경은 당연히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최초로 전체 마을이장들이 모여 유전자변형농작물(GMO) 퇴출 선언을 했고, 농약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화학비료를 억제하는 친환경농법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국내 최대규모 천연염 염전을 군이 매입해 자연생태체험장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노을이 아름다운 생물권테마벨트 조성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아가 군은 황새가 날아다니는 친환경 고창이라는 인식을 경제효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계르마늘 황토 땅에서 재배된 고창의 수박과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은 이미 국내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된 환경친화적 농산물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은 선택 지갑을 열었다. 여기에 황새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는 고창군의 강력한 브랜드가 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황새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사람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며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친환경 도시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확이 끝난 인직 드문 심원, 해리 농경지도 황새들의 먹이터가 됐다.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사용이 줄어든 결과다. 염전에 물을 끌어 오기 위한 돌담식 농수로도 황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콘 크리트가 아닌 돌담식 농수로는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생태계 극상의 환경에서만 사는 황새의 출현으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창, 한반도 황새의 고향으로 키운다

철새 황새는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살다가 대개 11~12월에 우리나라로 내려왔다가 이듬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돌아간다. 이를 잡아두고 텃새화 시킨다면 한반도 황새복원에 큰 성과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도 ‘한반도 황새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고창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황새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황새 동지킴이를 세우고 있다. 16m높이의 인공 동지킴에 황새가 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